

1. 환영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 합니다.
아래층 친교실에서 친교의 식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2. 결산 및 예산 공동의회

오늘 예배 후에 결산과 새해 예산통과를 위한 공동의회를 예배 후에 갖게 됩니다.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사역자 임명

본 교회 선교목사로 이정훈 선교사 (러브롭 소속 원주민 순회 선교)를 임명 합니다. 원주민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세례 문답교육

세례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조혁연 전도사에게 신청해주시고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5. 목장 교회 모임

한 달에 한번 이상 목장 별로 모임을 가지시고 목자를 중심으로 말씀 그리고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 시니어목장 12월 5일 오전 11시 30분 드레곤 포트 식당에서 모입니다.
- 푸른목장은 12월 9일 오후에 조혁연 전도사/김호진 사모 댁에서 모입니다.
- 모모목장은 12월 14일 하선미 전도사 댁에서 모입니다.

6. 교회 연말 일정

- 12월 2일: 새해 예산 및 결산 공동의회
- 12월 16일: 선교회 정기총회
- 12월 23일: 성탄주일, 세례식 및 성찬식
-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7. 금요 중보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에 갖게 되는 금요 중보기도 모임을 저녁 8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중보기도운동이 일어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8. 교인 동정

- 1) 한국방문: 이병규 장로/이주성 권사,
- 2) 김재상 장로, 박장진 권사, 최명균 집사, 김삼섭 집사, 김의경 집사 등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순서 담당 및 봉사자

이번 주일 친교담당은 김선옥 권사, 강명례/강명희 집사 가정이며 호프목장 목원들이 식당봉사로 섬깁니다.

10. 예배 봉사자

다음 주일 기도: 김경배 목사
12월 봉헌 봉사자: 장혜진 집사

11. 특별 기도제목

- 1) 교회 사명선언문: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여 성숙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소서
- 2) 성도중에 특별한 건강회복이 필요한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 3) 다음세대들에게 영감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 4) 교회 안에 중보기도자와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 5) 상처가 많은 원주민들을 주의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북한땅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제20권 48호

2018년 12월 2일

사명선언문: 이웃을 인도하여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한다

5대 비전

† 감동적인 예배

† 사랑의 교제

† 질적인 성장

† 헌신적인 사역

† 생명의 증거

오전 11:00

주일 예배

인도/
김의중 목사

*찬양 및 목상기도 /

다같이

*찬 송 /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사 도 신 경 /

다같이

참 회 기 도 /

조혁연 전도사

성 경 봉 독 /

전 6:1-12

성 가 대 찬 양 /

성가대

설 교 /

김의중 목사

“참된 지혜가 가져다 주는 행복 (7) ”

환 영 과 소 식 /

인도자

*찬 송 /

아 내 맘속에 (473장)

*봉 헌 기 도 / (현금은 예배시작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인도자

*축 도 /

김의중 목사

(*표는 일어서서)

오후 7:30

수요 찬양과 말씀 기도회

인도/
김의중 목사

찬 양 인 도 /

최정열 형제

설 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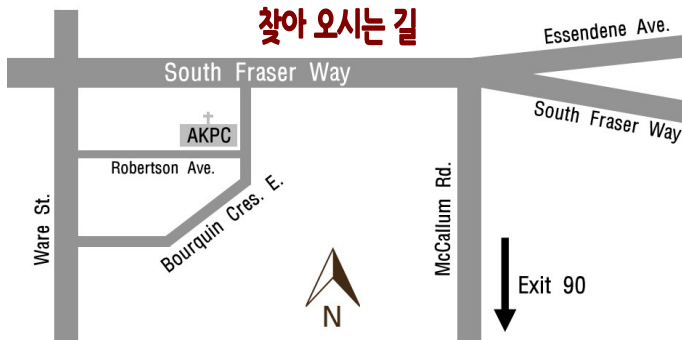
김의중 목사

새벽 6:00 (화~금)

매일 새벽기도회

인도/
김의중 목사

“전도서 연속 강해”



캐나다장로회
아보츠포드한인장로교회

Abbotsf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2597 Bourquin Cres. E. Abbotsford, B.C., V2S 1Y6 T)778-808-2333
abbotsfordkorean.com akpchurch.com

살며 생각하며...

행복한 신앙을 위한 27가지 조언

1. 식사 기도는 제발 좀 짧게 하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식사기도는 짧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식사기도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최대한 빨리 기도를 마치고 즐겁게 식사를 하라. 정 하고 싶은 기도가 있으면 밥을 먹고 나서 하면 된다. 부디 거창하고 복잡하게 믿지 말고 단순하고 가볍고 즐겁고 재미있게 믿으라. 신앙이란 형식이 아니고 삶이다. 거창하고 무거운 삶이 아니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우며 자유로운 삶이다.

2. 깨어지고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은 '깨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 도대체 깨지고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말인가? 계란이 하나 있다. 그리고 계란의 껍질이 깨지면서 속에서 병아리가 나온다.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껍질이 깨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있는 병아리가 때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껍질이 깨어진 것이다. 내가 깨지고 죽어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변화된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 변화된다.

3. 제발 좀 죄책감을 버려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이들이 참 많다. 이상하게도 착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참으로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악하고 못되었다는 것인지 사연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죽어야 될 만큼 심각한 죄는 아니다. 그냥 애매 모호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4. 과연 하나님이 치시는 게 맞는가?

잘 나가던 자신을 하나님이 치셔서 망하셨기 때문에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는 간증을 참으로 많이 들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징계하고 매를 드시는 것이다. 특하면 사업을 망하게 하고 매를 들고 즉시로 박살을 낸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치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당신의 확신을 강요하지 말라

대체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이 많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확신이 많은 경우에 평화를 깨뜨린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의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그가 소속하고 처한 곳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어떤 이들은 참 알아먹기 어려운 난해한 질문을 하는 것을 즐겨서 사역자들을 골탕먹이기도 한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모를 것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분명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피를 만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비난해야 하는가?

6. 자기 비하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정적인 고백으로 자기비하는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 "저는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별래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자신이나 듣는 사람을 참으로 지치고 피곤하게 한다. 즐거웠던 기본도 다 영망이 되어 버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이도 옆에서 열심히 위로하는 이도 같이 비참해진다. 이런 사람들은 위로 받을수록 더 비극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맞아요. 당신은 정말 부족하군요"하고 맞장구를 치면 큰일나는 수가 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자기를 모자라는 인간으로 매도를 했다고 그 순간부터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자신을 비하하고 있을까? 어쩌면 옆에서 "아니야, 당신은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엄살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여두움의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서 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을 치는 것이다. 그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이든 아니면 정말 그렇게 느껴서 자기 비하를 하든 그는 그런 고백과 함께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니 굳이 당신이 옆에서 그들을 거들어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비하의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만들어져 가는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한다. (다음주 계속)

-정원 목사-

지난 주에 드린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김의종/이성순, 김미애/조용복, 박덕선/이혜선, 엄태현/박효순, 이병규/이주성, 하선미/신정목.
주 일	김의종/이성순, 강명례/강명희, 강신영/박영미, 강수석, 강영구, 강현주, 고재경/박혜옥, 김경배/김은실, 김미애/조용복, 김선옥, 김성용/김안나/지성, 김영미A/중수, 김영미B/호운, 김의경/영빈/영안/영우, 김일권/최은영, 남기원/김혜신/우주, 박덕선/이혜선, 박장진, 엄태현/박효순, 유재용/장혜진, 유중영/원유숙/은성/찬양, 이병규/이주성, 이선아/윤지/윤영, 정윤희/민서/채환, 조혁연/김효진/하루, 최유진/태현/성민, 최정남/세은, 최정열, 하선미/신정목/재하, 홍석/이미숙, 최지현/나은, 유초등부, 학생부, 무명.
감 사	김의종/이성순, 김선옥, 김영미A/중수, 박덕선/이혜선, 유재용/장혜진, 유중영/원유숙, 진돈화.
선 교	김의종/이성순, 김선옥, 박덕선/이혜선, 하선미/신정목.
합 계	\$2,236.95

예배위원

다음 주 기도	김경배 목사
안 내 위 원	김경배 목사 / 한상순 전도사
12월 헌금위원	장혜진 집사
이번 주 친교봉사	김선옥 권사, 강명례/강명희
이번 주 주방봉사	호프목장 회원

예배 시간 및 모임 안내

예 배 시 간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00	Abby Bible College	디모데전서 연구
수요 말씀과 기도의 밤	오후 7:30		화요일 오전 10시
중 고 등 부	오전 11:00	2 0 3 0 부 모 임	주일 오후 2시
아 동 부	오전 11:00	개 인 중 보 기 도	수시로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6:00	목 장 모 임	각 목장 별로

섬기시는 분들

담임목사:	김의종
사역 담당:	조혁연 (교육/사무), 하선미 (주일학교), 고재경 (2030부), 김경배 (시니어), 이정훈 (선교), 장혜진 (새가족), 김은실 (지휘자), 한상순 (심방), 최정열 (찬양)
시무 장로:	이병규, 이혜선 장로: 김재상, 박동욱, 박덕선